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 순례자

☉ 2005년도 표어 ☉

교회, 세상의 소망(벧전 2:9-12)

☉ 행동지침 ☉

- 1. 이웃의 등대
- 2. 민족의 구원선
- 3. 세상의 나침반

† 발행인 : 이종윤 † 발행처 :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210 전화:(02)558-1106 팩스:(02) 558-2107 www.seoulchurch.or.kr



## 악한 자의 말과 진실한 말

(시편 12:1-8)

악한 자는 누구이고 진실한 자는 누구입니까? 악한 자와 진실한 자는 외모로 알 수 없으며 세상에서는 천대 받는 사람도 실상은 하나님 앞에서 선한 자일 수 있습니다.

### 1. 악한 자의 말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1절).

시인은 악한 자들의 말 속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 (1) 거짓말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함이어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2절).

악한 자는 그가 하는 말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경건하지 못한 자는 거짓말을 많이 합니다. 뿐만 아니라 신실하지 못하여 빈 말을 자주 합니다.

요한계시록에 의하면 거짓말 하는 자는 불못에 던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거짓말은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경건하지 못한 사람은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 되심을 부인하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경건하지 못한 사람이 충실한 삶을 살 수 없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 (2) 아첨하는 말

아첨하는 말은 악한 마음으로 공허한 말을 하는 것보다 더 악한 것입니다. 악한 목적으로 아부하는 말을 하는 것은 자신 뿐 아니라 상대방까지도 죽이는 일이 됩니다.

솔로몬은 잠언에서 아첨에 관하여 여러 차례 경고를 했습니다(잠 26:28, 28:23, 29:5). 히브리어로 아첨은 ‘매끄럽다’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첨은 호감을 느끼도록 매끄럽게 말을 하여 상대방에게 치명타를 가하는 것입니다.

### (3) 속이는 말

속이는 말은 한 입을 가지고 두 마음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속이는 말은 거짓말과 또 다른 것으로 어느 것이 진짜인지 알 수 없는 말입니다.

### (4) 자랑하는 말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함이로다”(4절).

자랑하는 말을 하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입니다(3절). 교만한 사람은 누군가를 말로 이겼다고 자랑 합니다. 그러나 말로 이긴 사람은 실상 진 자입니다. 말로 이긴다는 것은 수단을 정당화 시키는 것으로 종말의 날에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이들은 이기 기만 하면 모든 불의가 정의로 변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 (5) 제 맘대로 하는 말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것이 아니듯 우리의 혀도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이므로 내 입으로 내 맘대로 말하겠다는 것은 매우 교만한 생각입니다.

블란서의 무신론자 볼테어는 말하기를 “20년 내에 기독교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



이종윤 목사(서울교회 담임)

**성경은 하나님께서 기쁘게 약속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성경은 약속을 기필코 이행하시는 신실무망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능치 못하실 일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므로 반드시 이루어 집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을 것이다. 그리고 50년 후에는 아무도 기독교를 기억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해 영국의 대영박물관은 러시아 정부로부터 시내산 사본 성경을 5십만 달러를 주고 구입했고, 반면 그의 책은 8센트에 팔렸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지막을 보았던 주치의는 그가 죽을 때 “나는 하나님과 사람에게 버림을 받았다. 나는 지옥에 갈 것이다.”라는 말을 했다고 증언 했습니다.

### 2.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놀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5절).

시편 가운데 하나님이 직접 주신 말씀(Oracle)은 여기가 처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순결하여 도가니에 일곱 번 단련된 은과 같은 것으로 완전한 권위를 가진 온전하고 깨끗한 말씀입니다(6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구와 성경을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비평주의 학자들은 성경을 하나의 문학작품으로 봅니다. 또 어떤 이들은 성경을 하나님과 사람의 말이 합쳐진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흠이 없는 것으로 믿는 자와 심지어는 불신자에 의해서까지 검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미국의 1974년 12월 30일에 발행된 Time지에는 다음과 같은 기사가 있습니다. “성경에 대한 비평주의자들의 연구는 인상적이지만 그들의 연구 때문에 오히려 성경이 믿어지게 되었고 역사적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성경은 역사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지 공허한 작화가 아닙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허위와 과장이 없습니다. 그러나 두 마음을 품고 겉과 속이 다른 말을 하는 악한 인간들의 말은 결코 믿을 바가 못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기쁘게 약속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성경은 약속을 기필코 이행하시는 신실무망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능치 못하실 일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므로 반드시 이루어 집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주님은 구하면 주신다고 하셨는데 우리 가운데는 아직도 구하지 못하고 미련한 걸음을 걷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이는 주시겠다고 하는 주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따라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 3. 하나님을 향한 기도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7절). 시인의 이 기도는 세상의 모든 성도들이 함께 드려야 할 기도 제목입니다. 이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진실과 능력과 소망을 구하는 것은 성도의 놀라운 복입니다.

###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고와 사건, 질병과 모든 종류의 악한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믿으시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시므로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존하심을 받으시며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 현당감사 14대 행사

## 어린이 백일장 · 사생대회 심사결과 발표

지난주일 한타공원에서 개최된 어린이 백일장 사생 대회를 은혜 중에 마쳤다. 글짓기 부문에 91명, 그리기 부문에 201명 등 총 292명의 어린이들이 참여하여 진행된 이번 대회에서 35명의 어린이들이 수상자로 결정되었다.

수상자들은 오늘 찬양예배시간에 시상식을 갖는다. 더욱 많은 어린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교회를 사랑하고 자신의 재능도 발견하고 나의 사랑 하나님께 영광드릴 수 있도록 기도한다. 수상자들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 -글짓기 부문-

최우수상 (1-2학년) 윤승연 (3-4학년) 이지원 (5-6학년) 조호정

우수상 (유치부) 김지수 (1-2학년) 조채린 (3-4학년) 이소영 김민선 (5-6학년) 우선영 이명찬  
장려상 (1-2학년) 이용은 (3-4학년) 배성준 강미선 (5-6) 진성록 송승근 박지원

#### -그리기 부문-

최우수상 (유치부) 김지수 (1-2학년) 이선민 (3-4학년) 김경현 (5-6학년) 임호진  
우수상 (유치부) 이은 김형원 (1-2학년) 나수아 강예선 (3-4학년) 흥진희 최희연 (5-6학년) 한주혜 이유빈  
장려상 (유치부) 이재현 오윤서 (1-2학년) 이승희 권하은 (3-4학년) 박은경 이정빈 (5-6학년) 주은교 윤세정

## 성경암송대회 다음 주 예선

### 23일(주) 각 교회학교 별로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일 년 간 수시로 읽고 암송하던 성경암송대회 예선이 다음 주 일 교회학교별로 실시된다.

금번 성경암송대회는 빌립보서 전장을 본문으로 실시되며 다음 주일 교회학교별로 예선을 치르고 여기서 선발된 성도들이 28일(금) 저녁 7시 본선을 갖는다.

## 고등부 총동원주일

### 오늘 1부 예배 후 601호실에서

우리교회 고등부는 오늘 1부 예배 이후에 총동원주일 행사를 갖는다. 이번 총동원 주일 행사는 그동안 예배는 드렸지만 고등부 성경공부에 참여하지 못했던 친구들, 여러 가지 이유로 오랫동안 결석한 친구들, 그리고 그동안 작정했던 태신자들을 초청하는 자리로 마련된다. 1부 예배를 마치고 해당되는 모든 고등부 친구들, 601호에서 다 만나 주의 사랑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도록 기도한다.

시령차 대원 150일 연속 기도-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 동녘의 한자락 대한민국을 위하여...

이용선 원로장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태초에 말씀으로 우주를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동녘 한 자락 독도까지 아름

다운 동산으로 조성하시고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국토로 지계표를 세워주시며 안주하게 하여주시기를 감사하옵습니다.

지구촌 도처에서 폭풍과 폭우와 해일 그리고 지진 등의 자연 재난과 자살 테러로 인한 대량 살상 등 신음소리가 끊기는 날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센 땅을 구별하실 같이 우리나라를 지켜주셔서 평화와 안전을 주시고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하옵습니다.

6.25 동란으로 폐허 된 조국을 근로자와 기업인 그리고 은 국민이 각 분야에서 최선을 다해 세계 11위의 경제 한국의 위상을 높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하옵니다.

하나나 하나님의 섭리로 나라가 세워지고 기도로 촉발한 국회가 하나님의 은택을 저버리고 대한민국의 정통성마저 상실한 채 표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 죽고 또 죽어 종말이 처참한 적그리스도 공산당에게 미혹되지 않도록 지켜주소서.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고 하나님의 영광이 햇빛같이 비취어져 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학원 심지어 교회까지 개혁과 진보의 가면을 쓰는 우상 숭배와 인본주의 사상을 주입시켜 오염케 하고 있사오니 전지전능하신 주님께서 쓴 뿌리를 제거하여 주시고 의와 평강과 화락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소서.

구원의 주님!

혼돈과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되고 회복되게 하시며 복된 땅에도 신앙의 자유가 이루어져 복음화 된 통일조국이 속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소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허승(편집부)

### 현당감사 14대 행사-연합찬양제 참가교회 찬양대 소개

## 영락교회 갈보리찬양대

이번 주는 지난 주 새문안 교회의 새문 찬양대에 이어 영락 교회의 갈보리 찬양대를 소개한다.

영락교회는 우리나라가 해방되던 해 1945년 12월에 창립되어 오늘에 이르기까지 평실상부한 한국의 대표 교회로 성장하였다. 올해로 창립 60년이 되는 영락교회는 이즈음 과거의 영정적인 신앙과 헌신을 회복하고자 하는 회복의 물결이 일고 있다. 순수하고 결손했던 초심을 회복해서 미래로 나가자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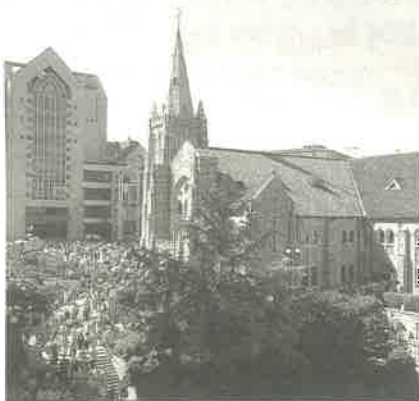
이번 연합찬양제에 참가하는 영락교회의 갈보리 찬양대는 1973년에 창단되어 현재까지 4부 예배를 담당하고 있으며 대원은 약 150명으로 격주로 악보를 암기하여 찬양 하며 그 간 하나님께 드렸던 고전 성가 가운데 난이도가 높다고 하는 마태수난곡, 엘리야등 5장의 CD를 출판한 수준 높은 찬양대이다.

갈보리 성가대의 지휘를 맡고 있는 박신화 집사는 지난 번 우리교회 찬양대 세미나에 강사로 오시어 우리와는 매우 친밀한 분이다. 연세대의 동대학원을 졸업하고 미국 콜로라도 대학에서 합창지휘학 박사학위를 받은 박신화 집사는 현재 이화

여대 교수로 재직 중이며 한국 최고의 합창단이라는 명성을 안고 있는 안산시립합창단의 상임 지휘자이기도 하다.

박신화 집사는 서울교회 헌당기념 연합찬양제에 참가하게 된 것을 부처 뜻 깊게 생각하며 서울교회에 출중한 파이프오르간이 설치되었다고 들었는데 기대하는 바가 크다고 덧붙였다. 그리고 헌당하는 서울교회에 "특별히 존경하는 이종운 목사님께서 시무하시는 서울교회가 14년 만에 헌당 하는 것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서울교회가 지금까지도 한국교회의 모범이 되어 온 것처럼 앞으로도 영적으로 더욱 성숙하여 세계를 가슴에

#### 영락교회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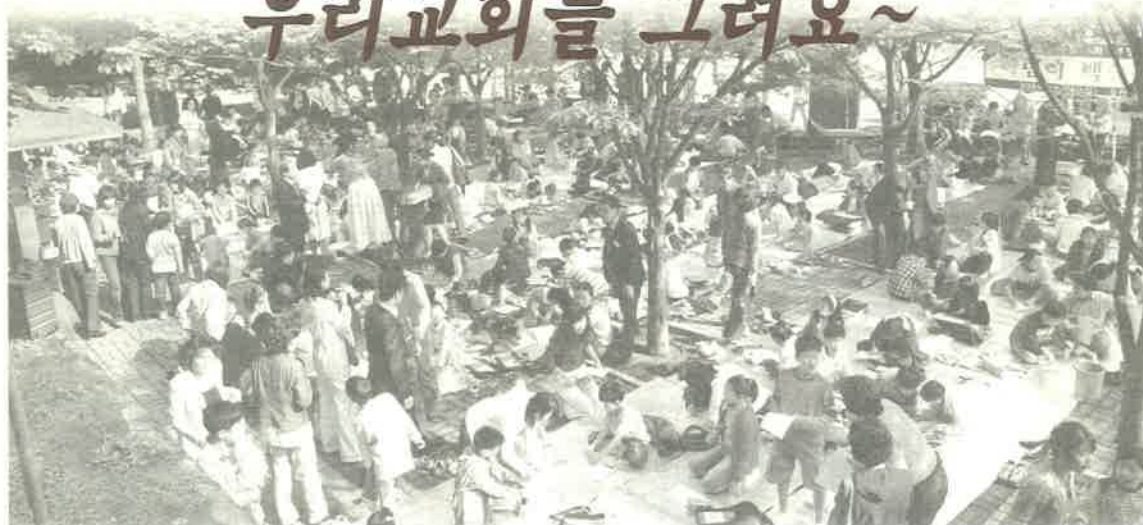
품는 교회로 성장하기 바란다."는 축하메시지를 전했다.

갈보리 성가대는 이번 연합찬양제에 '헨델의 대관식', '이 기경의 시편 150편'의 두 곡을 가지고 참가하게 되는데 '대관식'은 작곡가 헨델이 솔로몬 왕의 대관식을 근거로 하여 작곡한 것으로 이 곡은 박신화 집사님께서 특별히 서울교회 헌당을 위해 선정한 것이라고 한다.



현당감사 14대 행사-어린이 백일장·사생대회

# 우리교회를 그려요~



지난주 주일 낮 10시. 한티공원에서 어린이들이 가득  
모여 그림 그리기와 글짓기에 여념이 없었다. 날씨가 짙아  
놓은 야외용 돗자리에 응기종기 모여앉아 큼지막한 크레파스를 자그마한 손에 쥐고, 새하얀 도화지위에 무엇인가 열심히 그려내는 모습에서 자못 진지함이 묻어났다. 무엇을 그리고 있냐고 물어보자 "우리교회 그려요"라고 대답하는 어린이들. 정말로, 도화지 속에는 어느새 멋진 교회 한 채가 지어지고 있었다. 작품은 작가의 거울이라는 말처럼, 어린이들의 그림에는 때 묻지 않은 순수한 믿음이 묻어나왔다. 교회 위로는 하늘 문이 열려 천국 빛이 쏟아지고, 천사들은 나팔을 불며 내려온다. 이것이 어린이들이 바라보는 교회의 모습이었다.

맞은편에는 원고지 칸칸이 글을 채워 넣으며 열심히 글짓기를 하고 있는 어



사생대회등 입표진(5-3)

린이들이 있었다. 어느새 생각이 정리되었는지 빠르게 써 내려가는 어린이, 아직 무엇을 쓸까 고민하는 어린이, 원고지 한가득 메운 글자 글자마다 정성이 엿보인다.

주님의 은혜로, 많은 관심과 성원 속에서 유치부부터 초등부까지 약 300여명에 이르는 어린이들이 참여했다. 그림그리기에 201명, 글짓기에 91명이 참여했으며, 기운이 낮아 어린이들이 감기에 걸릴까 우려했던 것과는 반대로 따사로운 가을 햇살이 내리쬐어 창작활동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이번 행사로 어린이들의 하얗고 순수한 마음이 도화지에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는 계기가 되기를 기도한다.

오주명(편집부)

글짓기 최우수상

## 하나님

초등부 5학년10반 조요정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환상  
우리 마음  
한 가운데  
집을 짓고 계시는 하나님

혹시  
우리가 넘어질까 봐  
나무처럼 기둥처럼  
등대 주시는 하나님

혹시  
우리 마음에  
상처가 날까봐  
열심히 우리 마음을  
청소해주시는 하나님

혹시  
우리가 아이들에게  
전도를 할까봐  
마음의 문을 열고 계시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은  
우리들의 가족  
우리들의 넓은 바다

이런 것들을  
일려주시는  
나의 교회  
아름다운 서울교회

## 아름다운 서울교회

### 백일장 심사평

나소성 선생(명지대 문예창작과 강의교수)

서울교회 현당감사 축제로 열린 이번 어린이 백일장 대회에는 교회학교의 유치, 유년, 초등부 많은 어린이들이 참가하여 교회 사랑과 같고 닮은 글 솜씨를 뽐내었다.

올해로 열네 살이 된 서울교회보다도 아직 나이 어린 교회학교 어린이들의 작품 속에는 해맑은 동심과 교회를 자랑스러워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 담겨 있었다. 원고지에 포박포박 눌러온 어린이들의 교회사랑,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통해 우리 서울교회가 이렇듯 건강하고 밝게 자라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어 기쁜 마음으로 심사에 임할 수 있었다. 그러나 비록 맞춤법과 문법은 실수투성이였지만 글에 담긴 마음만은 모두 백점짜리였기에 우열을 가리는 일 자체가 곤역이 아닐 수 없었다.

각 부서의 우수작품을 소개해 보면, 최연소 입상자인 유치부의 김지수 어린이는 "하나님이 하하호호 웃으시고, 예수님은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며, 성령님이 두 팔 벌려 안아주시는 교회"를 노래하여, 교회와 함께

하시느 삼위일체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듯 진솔하고 생생하게 표현하여 높은 점수를 받았다.

가장 눈에 띄는 작품으로는 5학년 조호정 어린이의 작품으로, 수준 높은 메타포를 구사하여 서울교회의 모습을 아름다운 한 편의 시로 담아내었다. 주제를 요연하게 담아내는 힘과 전체적으로 안정된 구성, 교회를 바라보는 무구하고 따뜻한 시선이 마땅인 글이었기에 주저 없이 최우수작으로 선정하였다.

어린 시인들과 작가들로 인해 더욱 풍요로워진 현당감사 백일장대회를 마치고, 우리 교회에 내리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축복에 감사드립니다. 더불어 이 축제에 관심과 열정을 보내준 교회학교의 어린이들과 학부모들에게도 감사와 축복을 드린다.

### 그리기 부문 심사평

김유선 선생(화가, 어린이 수유예매 교사)

서울교회와 하늘사이에는 언약의 무지개가 이어져 있고, 여러 민족으로 보이는 각 나라의 민족의상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가고, 예배당 안에서는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

으며, 교회학교 안에서 즐겁게 웃고 있는 학생들과 교사들의 모습. 이 모든 이야기들은 이번 사생대회에서 보여주었던 서울교회 어린이들의 생각과 마음을 고스란히 담았던 그림들의 내용을 그대로 묘사한 것이다.

유쾌하게 혹은 통쾌하게 어린이들은 어른들의 복잡하고 어려운 삶과 문제들을 단순하고도 아주 쉬운 한마디로 정리해 줄 때가 있는데 그러한 좋은 예가 이번 사생대회를 통해 보게 된 그림들이었다.

찬란하고 아름다운 무지개가 우리 서울 교회에 늘 떠있었다는 사실이다. 영적인 눈으로 세상을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같은 교회를 섬기면서도 내가 본 것이 본 것이 아니고 인다고 하는 것이 얇아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어린이와 같이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올 수가 없다고 하신 말씀이 어떤 뜻인지 구체적으로 깨닫고 체현하게 된 아주 귀한 시간이었다.

교사로서의 부족함과 영적인 무지함을 깊이 회개하면서 서울교회의 꿈나무인 우리 어린이들이 품과 마음, 그리고 영혼이 강건함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비전을 받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 받는 일꾼들로 성장하기를 간절히 기도한다.



# 2005 사명자 24시간 연속기도표 (10.16~22) 기도지원자는 1층 현황판에 이름을 적으십시오.

일시	0~1	1~2	2~3	3~4	4~5	5~7	7~8	8~9	9~10	10~11	11~12	12~13	13~14	14~15	15~16	16~17	17~18	18~19	19~20	20~21	21~22	22~23	23~24	
10/16	주일	주일예배																						
17	월	이명순 오창래 박정선	성준경 윤훈민	이남성 서경학 윤훈민	박분옥 서경학 이남성	이남성 서경학 박분옥	원희숙 홍순복 최태영	이만순 이선경 김찬진 최예순	황경신 이남성 배은희 김경숙 박미경	김재에 손성실 송옥예	유요표 지성철 정호진 김익로	장병순 김연주 한옥순 김재길 김영호	이성애 한옥순	조상희 이부자	안성희 윤영덕 이부자	이순영 진선자	이순영 진선자	김영숙 김경희 백정순	김상옥 신종숙	이영희 홍재식	서경애 이귀숙 박분희	장윤숙	김진지 정윤순 이윤희	
18	화	김영준 금용숙 이명순	박두영 여현숙 김수호 한주찬	이동만 윤성남 김찬진 정윤순 이윤희	이은자 이윤희 윤성남 김재남 이동만	이윤희 이동만 손현순 윤성남	이애순	이애순	고정숙 이순례 김찬진 박경희 송동선	장정화 유숙인 이영희 김구진	김애수 유숙인 박이선 송희숙 이민화	함정희 홍석현	김미향 박은주	이양숙 박정임	곽숙 조정옥	김숙자 신현이 민예경 이정연	김건호 권희순 최화향 이인선	윤갑숙 김영숙 강원배 신동기	서민숙 조선영 김진안 신동기	유명종 이영희	이정실 윤종희 김영자 이윤희 신선주 서경애	원용범	원용범	
19	수	이영기 이명순 최정순	최정순 임상현	김영주 이찬호	이찬호 김영주 최정순 박분옥	이찬호 김영주 최정순 박분옥	최양혜	미은숙	홍정숙 정자영 장요옥 이승희 김복녀 박미경	김인순 한영	수 요 1 부	박정순 정애신 권소영 신현이	이영희 최근자 김찬진 김인순 방승희	이관모 박정임 최미아	심화숙 유관모 김찬진	채경희 이은배	채경희 이영환 장낙희	한명순 장정숙 김효순	수 요 2 부	서명조 김효순	서명조 김효순	정병민 하미영 김숙연 정진수	김상태	
20	목	김상철 이명순	김세재 이난화 이봉희	양춘경 이재홍 이난화 이봉희	양춘경 이재홍 박분옥	양춘경 이재홍 박분옥	이옥선 이효정	이옥선 권재애	김찬진 강미숙 손성실 박미경	김민지 최정희 노정숙 최미출	김민지 노정숙 최정희 최미출	김민지 노정숙 최정희 최미출	김민지 노정숙 최정희 최미출	김인순 강미경	박정임 유병옥 김종자	박정임 백영자	백영자 공진분	공진분	이영자 김영숙	강애자	강애자 제오목 구정희 김필영	서경애 전하미 김명애 김필영	유혜영 정옥	김혜란 김명순
21	금	민순규 박미예 이명순	이관규	장두원 우지원 배은선 박분옥 김지희	장두원 우지원 최현인 박분옥 서수녀	장두원 우지원 최현인 박분옥 서수녀	김옥숙 김명심	이동원 박수옥	김옥숙 장지영 최수자 김경미	송인순 한영식	황재연	이규남 장정업 장혜원	김애 김자경	창성하 박유신 이은보 이대원 박정임	김종두 이영혜	김정화 신동일 전미애 정철화	김영화 김선미 인연실 허태균	김예환 김영숙 서상근	박연순	박연순	금요기도			
22	토	이복규 윤용미 이명순 박종숙	윤찬오 유성임	이동권 송인권	이동권 송인권 박분옥	이동권 송인권 박분옥	현기옥 이영임 지영순	이인숙 임미경 임춘자 박선정 김지희	김일순 정수자 장정옥 정원호 김지희 박영애	김찬진 조숙자 정원호	노옥자	함정희 조정옥	송혜숙 서정숙	김미향	하숙	임명숙 한성준	박찬희 천기서	김영숙	대학 청년부 기도	대학 청년부 기도	대학 청년부 기도	대학 청년부 기도	이상섭 윤용미 박종숙	

## 교육1국 가족예배 출석 점검한다

부모님과 함께 드리는 1부 가족예배는 우리교회  
의 자랑이다. 예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지각생에게  
경각심을 불러 넣어 위해 예배 시작까지 각 부별로  
출석을 체크하기로 하였다.  
어린이 여러분의 열심이 더욱 커지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

## 10기 찬양대 양성반 수료 11기 찬양대 양성반 모집

오늘 찬양예배 시간에 제10기 찬양대 양성반 수료  
식이 있다. 한편, 10월23일(주)부터 시작되는 11기 찬  
양대 양성반을 모집한다.

(10기 찬양대 양성반 수료자 명단)  
김미애 김복연 김영서 김영호 김은희 김중본 김희순 김희옥  
문주용 박길희 박선희 박정규 백정숙 손태현 양지훈 왕경래  
이강진 이정아 이준규 전광환 최성희 최원석 한은주 황재연  
이상 24명

## 15기 전도학교 수료

-15기 전도학교 수료자 명단-  
강승웅 김철한 배준길 김미경 박 옥 신정순  
이상 6명

## 10월 성경 통독자 시상

- (3등) : (8교구)김현주 권사
- (2등) : (5교구)유후자 권사 (12교구)최위훈 집사
- (1등) : (1교구)백남은 집사 (2교구)정유선 권사  
(3교구)양옥자 권사 이봉규 권사  
(6교구)강영순 집사 (7교구)김진숙 권사  
(11교구)노문환 장로  
(12교구)김진영 권사 나기태 집사  
(13교구)안경옥 집사 이미송 집사  
이상 14명

### 동정

- 이종운 목사는 17일(월) 기독교학술원 학술상 심사위원회, 20일(목) 복음동지회에 참여 한다. 고 임옥 목사가 기념관 준공예배에서 축사를 한다.
- 이사: (7교구) 윤희권성도 김유경성도 용인 죽전 동성 @ T. 031-264-7867  
(6교구) 김상열 집사 노정숙 집사 양천구 목3동 롯데캐슬 @ T.2647-2207  
(12교구) 이병생 장로 박경희 권사 가정 용인 구 성읍 언남리 123번지 T. 011-369-5226
- 확장이전 : 4교구 이철우성도, 홍희숙 성도

- 한아름마트
- 득녀 : 오정식 목사 김혜숙 사모  
장운기 노애리 성도  
(6교구, 노송성 장로 이영옥 권사 외손녀)
- 득남 : (9교구) 김익로 정호진 성도 가정
- 주간 식당 봉사: 안드레션교회(10월16일)  
베드로선교회(10월23일)
- 금주의 식사: 이관규장로 · 이순영권사기정  
(자녀의 결혼을 감사하며)

### 이종운 목사 방송설교

TV	· 케이블 CH 42(기독교TV) 매주 월 오후 1시30분 · 위성 CH 162(기독교방송) 매주 목 오후 5시 · KISB(코리아 위성방송) 제3채널(북중미 지역 해외방송)
라디오	· HLKY 98.1 MHz(기독교 방송) 성서강해 매주 화 오전 5시30분 · HLKX 106.9 MHz(극동 방송) 생명의 빛으로 매주 금 오전 9시
인터넷	· 기독교 TV - ( <a href="http://www.cts.tv">http://www.cts.tv</a> ) · 중국어 인터넷방송 - ( <a href="http://www.c-highway.com">http://www.c-highway.com</a> )

## 서울 주간기도

●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사명자대회(10월9일부터 50일간)기간동안 5대 기도제목 성취되도록
2. 교회학교 학생 1만명 이상, 100명 이상 선교사, 사랑의 집 건설계획 하소서
3. 11월27일 헌당식, 삼승필사성경봉헌, 선교사 파송 은혜롭게 되도록
4. 대한민국의 정체성 회복을 위하여

### 예배 및 집회

구분	시간
주일예배	I부 오전 9시
	II부 오전 11시20분
	III부 오후 2시
찬양예배	주일 오전 5시
영어예배	주일 오전 11시20분
수요예배	I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금요기도회	오후 9시30분
새벽기도회	매일 새벽 5시30분

### 교회오시는 길

